



모잠비크 LNG 재개, VLCC 폭등, 트럼프와 핵추진 잠수함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이준범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신조선가 하락

① VLGC, LNGc, 대형 컨테이너선 신조선가가 3주 연속 하락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괜찮습니다.

▶ LNG 기대감 계속

② 보름 전 ExxonMobil의 모잠비크 Rovuma와 마찬가지로 TotalEnergies의 Mozambique LNG가 4년 반 중단되었던 사업 재개를 선포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17척이 2029~2030년 어느 슬롯으로 배분될지가 관심입니다. 2029년 인도물부터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LNG선 발주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슬롯은 또 뻥뻥해집니다.

③ IEA는 2030년까지 역사상 최대규모 LNG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 가스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 등에서 LNG 수요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④ Excelebrate가 이라크 최초의 LNG-FSRU 사업권을 따내고, HD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FSRU를 공급합니다.

▶ 뜨거운 탱커 시황

⑤ VLCC 운임이 일 13~17만달러로 폭등합니다. 선박 소티지로 '부르는 게 값'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동과 미국발 화물이 폭증했고, 가용 VLCC가 부족하고, 겨울철 성수기 진입에 따른 긴장 강화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단기 현상이 아닌 것으로 분석합니다.

⑥ 그러나 그리스 TMS는 VLCC 4척을 중국 Hengli에 발주합니다. 신조선가는 118백만달러 수준으로 낮습니다.

▶ LNG와 해양플랜트 콤보

⑦ QatarEnergy가 NFPS의 COMP5를 곧 발주하는데, HD현대중공업을 포함한 4개 컨소시엄이 경쟁 중입니다. 해양플랜트 수주와 함께, 카타르 3차 LNG선 발주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 핵추진 잠수함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사업협력

APEC 기간에 MASGA 프로젝트 관련 수많은 얘기들이 재차 확인됩니다.

⑧ 미국-중국은 관세/항만 수수료를 1년 유예합니다. 해운업은 이를 반깁니다.

⑨ 트럼프의 백악관은 한국 조선 BIG3의 미국 조선산업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Cerberus와 50억달러의 미국 조선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에 5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합니다. 삼성중공업도 미국 Vigor와 MRO, 자동화, 신조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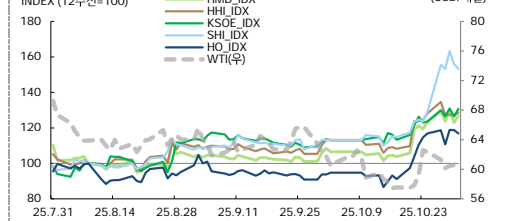
미국에서의 활동보다, 한국의 조선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⑩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이후 트럼프는 비공식적으로 SNS에서 승인 의사를 밝힙니다. 필리 조선에서 건조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⑥과 같이 언제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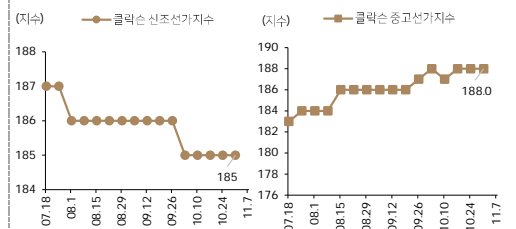
상황은 바뀔 수 있고 후속 논의들이 가능해집니다. 아무튼 장보고4는 핵잠이 됩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장보고4에서 또 상세설계를 담당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모니터링 차트

▶ 조선주 주가



▶ 선가지수



▶ 후판, 주요 선종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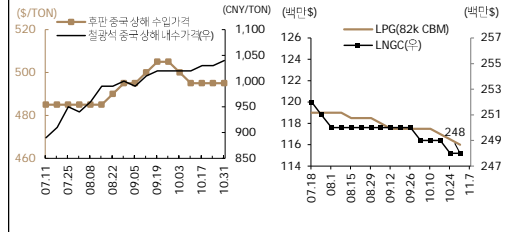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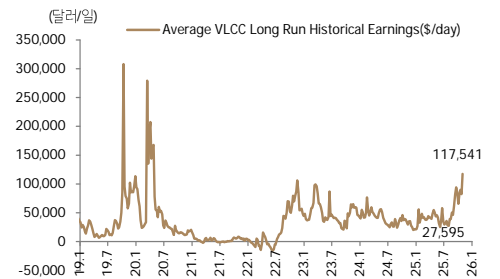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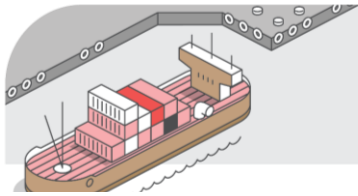
Fig. VLCC 스팟 운임 급등



주식 뉴스

☑ 수주, ❓ 수주설

주주	11월1주 주식뉴스	주주	10월3주 주식뉴스
선가 & 그린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조선가지수 2주 연속 소수점 하락, VLGC, 컨테이너선 3주 연속 하락 ▲ Faerder Tankers는 IMO NZF 지원에도, 알모니아 D/F 신조선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조선가지수 소수점 상승, 중고선가지수 188p 1p 상승 ▽ MPEC 회의에서 NZF(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 결정을 1년 연기 ▽ 트럼프,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Net Zero Framework)' 1년 연기 이끔, 사실상 장기 지연 신호 △ ExxonMobil, LNG 병커링 시장 본격 진입 ▽ Purus Marine, Shell과 용선 계약으로 LNGBV 시장 진입. 이번에는 중국 건조 	
L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TotalEnergies는 모잠비크 LNG 재개 결정.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17척 부활 △ IEA는 2030년까지 역사상 최대규모 LNG 공급, 가스가격 안정화 전망 제시 ▲ 삼성중공업 KC-2C를 개조로 적용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nture Global, Plaquemines LNG 공사 지연 두고 Chevron·Orlen과 또다시 충돌 ▲ 2025년, LNG선 거래(용선) '역대 최고치' 전망. 운임 약세. 2026년 이후 발주 재개 ▲ MISC, 30년 된 LNG선 2척 해체 매각: 누적 14척으로 역대 최고치 경신 △ Petredec, 9년 선형 VLGC를 한국 선주에게 80백만달러에 매각. 선형 관리 	
가스선 컨테이너선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MM 13,000-TEU 12척 + VLCC 2척 발주설. HD현대중공업 8척, 한화오션 4척 ▲ DH조선 8,800-TEU 2척 수주. 컨테이너선 3년만에 계약 ▲ CMA CGM, 인도 최대 조선소 Cochin에 1,700-TEU 6척(LNG D/F) 발주 	
탱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제재 끝나도, 탱커는 이중 구조로 재편 ▲ VLCC 시황, 펜데믹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 ▽ 그리스 TMS는 중국 Hengli에 VLCC 4척 발주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ital Group, 중국 Hengli 조선소에 VLCC 1척 신규 발주 	
해양/디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QatarEnergy는 NFPS의 COMP 5 곧 계약 △ 한국 조선 BIG3는 미국 조선산업 투자 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오션, 해군 예비역 소장 영입. 제재 직전 타이밍 '주목' ▽ 트럼프 중국에 100% 관세 위협 → 중국, 한화마린 계열 5개 법인 제재. "미국에 대한 우회 보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S는 미국과 중국 간 항만수수료(port fee) 상호 유예 합의에 환영 		



다올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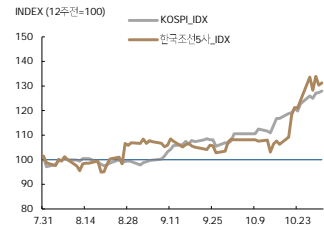
2025.11.02 [795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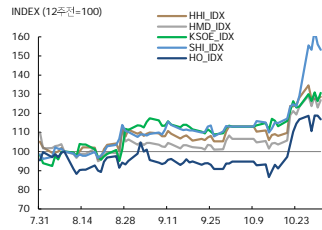
Peer Group 주가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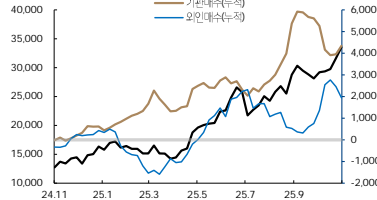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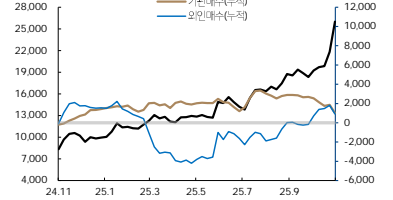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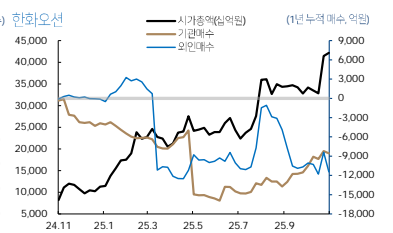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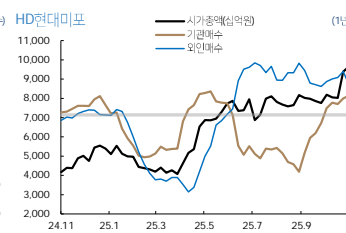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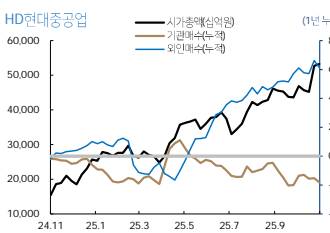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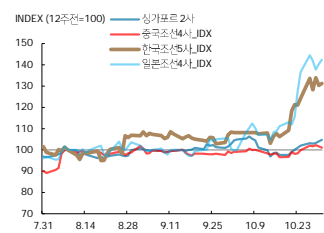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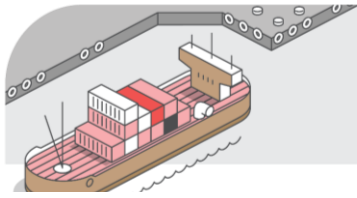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자수	WTI		-2.1%	-1.3%	-7.6%		12%	-3%
	CRB INDEX		-0.1%	0.7%	0.1%		8%	3%

조선사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23,616	5.8%	15.1%	34.7%		165%	528%
	HD현대중공업	37,262	0.3%	13.6%	35.0%		247%	419%
	삼성중공업	18,222	18.6%	35.5%	56.9%		213%	455%
	한화오션	29,495	0.0%	24.6%	52.9%		413%	735%
	HD현대미포	6,818	2.7%	17.0%	20.2%		133%	158%
싱가포르	KEPPEL	14,119	5.3%	13.7%	24.3%		59%	126%
중국조선	CSSC	37,944	0.5%	3.8%	2.2%		-3%	32%
	CSIC	#N/A	0.0%	0.0%	6.5%		2%	41%
	CSSC OMEC	4,239	2.8%	-1.8%	-2.2%		6%	-1%
	YANGZUJIANG	10,641	1.4%	7.3%	38.6%		39%	175%
일본조선	NAMURA SB	2,367	4.0%	62.5%	72.7%		235%	856%
	MITSUI ES	4,219	12.2%	48.2%	102.8%		467%	1330%
	KAWASAKI HI	13,512	7.0%	32.2%	14.2%		117%	375%
	SUMITOMO HI	3,295	-6.9%	21.0%	27.3%		26%	45%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813	-5.1%	-15.2%	11.4%		11%	23%

엔진 / 부품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엔진	WARTSILA	19,346	5.4%	14.0%	18.3%		58%	291%
한국엔진	한화엔진	2,884	1.0%	-0.3%	38.6%		258%	611%
	STX엔진	993	-8.7%	-12.6%	59.2%		88%	167%
	HD현대마린엔진	2,354	0.6%	12.2%	54.0%		434%	2470%
기자재	한국카본	1,329	-1.9%	7.0%	34.1%		246%	211%
	동성화인텍	666	2.9%	2.6%	28.8%		189%	185%
	세진중공업	877	-2.6%	3.5%	84.4%		229%	260%
	SK오션플랜트	927	-7.6%	-15.5%	7.2%		62%	3%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4,230	-1.5%	18.9%	28.0%		-9%	-5%	
	SEADRILL	1,964	-1.0%	0.2%	4.4%		-19%	-3%	
	Valaris	3,905	-1.0%	9.6%	11.2%		16%	10%	
IOC+	ODFJELL SE-A SHS	954	4.5%	-2.2%	0.3%		-5%	39%	
	ExxonMobil	487,545	-0.9%	2.1%	3.6%		-1%	2%	
	Shell	216,507	-1.2%	3.4%	4.1%		11%	31%	
	BP	91,113	1.7%	3.4%	11.2%		17%	12%	
	TOTALEnergies	137,188	0.1%	4.6%	5.1%		-7%	-5%	
	Chevron	315,282	1.4%	2.0%	1.9%		3%	14%	
	ENI	57,818	0.7%	6.4%	8.7%		14%	4%	
	Equinor	61,093	-1.4%	-1.6%	-6.1%		-4%	27%	
	ENG.	SBM	4,553	0.1%	3.1%	0.7%		32%	57%
		FEED.	TechnipFMC	16,727	4.7%	4.0%	13.4%		57%
FEED.	SAIPEM	5,188	0.0%	-9.3%	-2.2%		2%	12%	
	NOV	5,325	5.5%	7.8%	4.5%		-2%	36%	
	MODEC INC	4,444	8.7%	27.6%	60.6%		202%	172%	
	WORLEY PARSONS	4,813	-0.6%	2.0%	8.6%		3%	-5%	

해운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해운	MAERSKB DC Equity	32,632	2.1%	5.7%	-3.3%		19%	5%	
	SHIP FINANCE INTL LTD	1,078	6.0%	-2.2%	-20.0%		-30%	29%	
	CLARKSON PLC	1,466	0.3%	-0.8%	3.4%		1%	27%	
	EURONAV NV	3,000	1.1%	2.9%	3.6%		-36%	58%	
	GOLDEN OCEAN GROUP LTD	#N/A	0.0%	0.0%	-3.6%		-30%	14%	
	FRONTLINE LTD	5,574	6.4%	9.5%	35.2%		29%	83%	
	NORDIC AMERICAN TANKERS LTD	779	3.1%	9.9%	34.8%		14%	8%	
	KINDT OFFSHORE PARTNERS LP	385	-0.6%	2.7%	28.7%		50%	57%	
	LPG	BW Offshore	676	4.2%	-0.4%	8.5%		18%	2%
		DORIAN LPG LTD	1,230	4.5%	-0.6%	1.6%		9%	35%
EXMAR NV		1,003	2.5%	4.5%	26.6%		93%	75%	



다올 선박

2025.11.02 [795호]

DAOL 다올투자증권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실

▼ 신조 수주(외신, 전자공시 등)

▲ TotalEnergies는 모잠비크 LNG 재개 결정.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17척 부활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QatarEnergy는 NFPS의 COMP 5 골 계약

- 아래의 해양/디펜스 섹션 참고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① Samsung HI → Unknown, TK(158k-DWT) 3척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② Samsung HI → Eni, FPSO/LNG(3.0-MTPA) 1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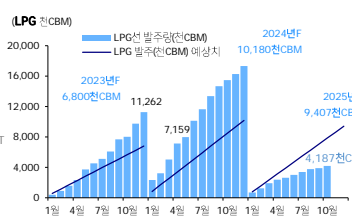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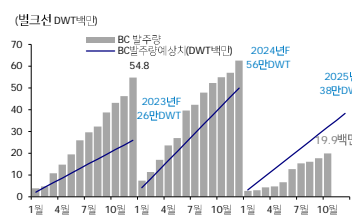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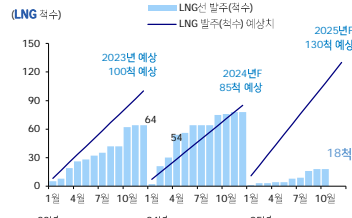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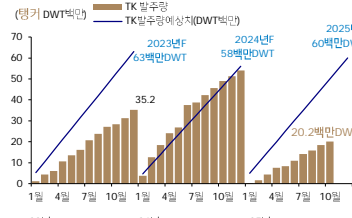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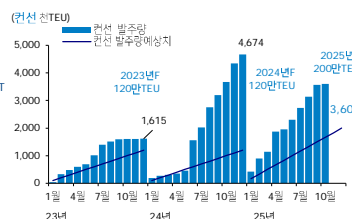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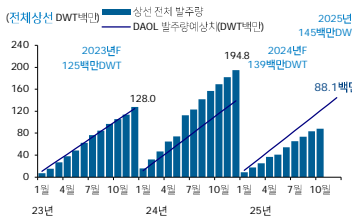
[09월4주] ▲ ENI의 Coral Norte FLNG 프로젝트 본격 진행. 모듈 제작 입찰 시작

③ Hyundai HI (Ulsan) → Nissen Kaiun, LPG(88k-CBM) 1척

- 알려지지 않은 수주권. 오랜만의 VLGC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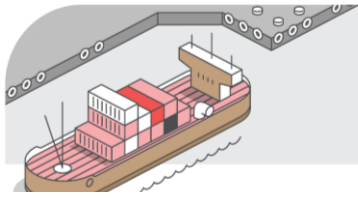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5년 10월 2주							
대한민국	DH Shipbuilding	25.10.14	일본	Doun Kisen	CONT	9k TEU 2028 2	
중국	Huangpu Wenchong	25.06.01	중국	Jiangsu Ocean Shp	CONT	2k TEU 2028 2	
		25.10.10	중국	SPG Shipping	CONT	2k TEU 2028 2	
		25.03.30	유럽	Peter Dohle	CONT	3k TEU 2028 4	
중국	Haitong Offshore Er	25.10.16	중국	Huayuan Star Shpg	BULK	85k DWT 2028 2	
	Wuhu Shipyard	25.08.01	유럽	Polish Steamship C	BULK	45k DWT 2028 4	
		25.10.09	중국	Huaxing Shipping	BULK	65k DWT 2028 4	
Yangzhou Guoyu		25.06.01	중국	Shanghai Changsh	CONT	5k TEU 2027-2021 2	
		25.07.01	유럽	Conbulk Shipping	CONT	5k TEU 2028 2	
		25.10.01	유럽	Chartworld Shippi	CONT	3k TEU 2028 4	
Zhejiang Zhenxing	25.02.01	중국	Hainan Changyang	OFF-기타	13k DWT 2026 1		
Zhoushan Qifan	25.09.30	중국	Zhejiang Guohong	OFF-SUPP	4k DWT 2027 1		
Fujian Mawei SB	25.10.13	유럽	MPC Container Shi	CONT	2k TEU 2027 2		
Huanghai SB	25.07.25	유럽	Minerva Marine	CONT	2k TEU 2027-2021 2		
Jiangsu Huatai SB	25.05.01	중국	YZJ Financial	BULK	40k DWT 2028-2021 2		
Nantong CIMC SOE		25.10.10	중국	GSX Energy	LNGBV	20k cu.m. 2028 2	
		25.10.06	북미	Purus Marine	LNGBV	19k cu.m. 2028 2	
Hengli SB (Dalian)	25.10.15	중국	SPG Shipping	BULK	96k DWT 2028 1		
Jiangxi Jiangxin SB	25.10.08	중국	Sinopec OOSC	OFF-SUPP	5k DWT 2027 1		
CMI (Weihai)	25.10.01	유럽	XT Shipping	CONT	3k TEU 2027-2021 2		
CMI (Yangzhou)	25.10.09	유럽	Maritima	GASC	4k DWT 2028 2		
Liaoning Xinhai SB	25.10.15	중국	Trawind Shpg Log	BULK	19k DWT 2027-2021 2		
Unknown Yard Chin	25.09.30	유럽	Jan De Nul Group	OTHERS	35k GT 2027 1		
Zhejiang Chengda S	25.07.01	중국	Zhoushan Yongsh	GASC	14k DWT 2026 1		
일본	Yano Zosen	25.10.01	일본	Muraoka Kisen	PTK	1k DWT 2026 1	
2025년 10월 3주							
대한민국	Hyundai HI (Ulsan)	25.10.17	한국	HMM	TK	320k DWT 2027 2	
Samsung HI	25.10.23	북미	Delfin	FPSO/LNG	0k mtpa 2028 1		
중국	ZPMC Qidong Marine	25.10.16	중국	ZPMC	해양설치	50k DWT 2027 1	
	Huanghai SB	25.09.01	유럽	Seatrade Groningen	CONT	2k TEU 2028 2	
	Wuhu Wannan SY	25.10.20	중국	Anhui Const Eng	OFF-SUPP	2k GT 2027 1	
	Nantong Xiangyu SOE	25.10.21	중국	Shanghai Changjiang	BULK	82k DWT 2027-2028 2	
한국			한국	Sammok Shipping Co.	BULK	64k DWT 2027-2028 2	
2025년 10월 4주							
BIG6	Hyundai HI (Ulsan)	25.09.01	일본	Nissen Kaiun	LPG	88k cu.m. 2028 1	
Samsung HI	25.10.23	Unknown	Unknown	TK	158k DWT 2028-2029 3		
	25.10.03	유럽	Eni	FPSO/LNG	3-mtpa 2028 1		
만영	Guangzhou Shunhai SY	25.06.01	Unknown	Unknown	OFF-SUPP	2027 2	
	Jiangmen Nanyang		25.09.26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41k DWT 2027 1
			25.10.10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41k DWT 2027 1
			25.10.28	중국	Unknown Chinese	BULK	65k DWT 2027 2
		25.10.27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41k DWT 2027 1	
		25.10.22	중국	Unknown Chinese	BULK	41k DWT 2026-2027 4	
	New Times SB	25.10.24	유럽	Bruton Ltd.	TK	302k DWT 2028-2029 2	
Hubei Hechuang HI	25.10.22	중국	Shandong Harbour Eng	OFF-SUPP	2027 1		
Hengli SB (Dalian)		25.10.21	Unknown	Seanergy Maritime	BULK	181k DWT 2027 1	
			유럽	Eastmed	BULK	82k DWT 2026 4	
Rongcheng Yuanlong		25.05.19	중국	Fuxin Shipping	OFF-기타	3k DWT 2026 1	
		25.08.11	중국	Rongcheng Haichen	BULK	6k DWT 2027 1	
SOHO I&T SB	25.09.01	중국	Rongtuo Shipping	BULK	64k DWT 2027 4		
Zhoushan Newrising	25.07.23	중국	Zhoushan Hengyao	CONT	1k TEU 2026 1		
New Xiangsheng SB	25.10.18	아시아	Hai Soon Diesel	GASC	8k DWT 2027 2		
일본	Imabari SB Saijo	25.09.01	Unknown	Unknown	PTK	1k DWT 2027 2	
	Miura Zosencho	25.09.01	일본	Toshin Yusosen Co.	PTK	181k DWT 2027 1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신조선가치수 2주 연속 소수점 하락. VLGC, 컨테이너선 3주 연속 하락

신조선가치수는 184.87p로 0.15p 하락. 울트라막스~포스트막스급 컨테이너선과 VLGC 신조선가가 3주 연속 하락
중고선가는 지수와 선종별 선가가 보합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당사 의견

▶ 그란십

▲ Faerder Tankers는 IMO NZF 지연에도, 암모니아 D/F 신조선 프로젝트 추진

노르웨이 Faerder Tankers는 2028~2029년 인도 목표로 선주 및 용선사와의 협의를 가속
CEO는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도입 연기에도 불구하고, 해운 탈탄소화 전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명
50,000-CBM 암모니아 벙커링용 MGC, 차세대 Aframax, LR2, LR3 탱커, PCTC 등에 모두 암모니아 D/F 추진선 프로그램으로 개발 중
탄소제로 전환은 투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IMO의 정책 지연과 무관하게 신조선 협상 및 조선소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2028년 말~2029년 초 인도 목표, 용선사들과 선박 장기용선 계약(charterparty) 협의가 막바지라고 설명
Faerder Tankers는 2018년 설립, 스텐베르그가 지분 다수 보유
2025년 여름, 노르웨이 해운계 원로 악셀 로렌첸(Axel Stove Lorentzen)이 지분 참여 및 회장 선임
과거 대한조선에 발주한 Suezmax 원유운반선 4척을 그리스 Angelicoussis Group이— Maran Tankers에 리세일한 바 있음
암모니아 연료 전환에 대한 입장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성숙하고 실현 가능한 대체연료는 암모니아"라며 확신을 표명
"독성 등 위험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며, 승무원 안전관리와 품질보증 절차로 충분히 대응 가능"이라고 강조
IMO 정책 지연에 대한 평가
"IMO 결정은 글로벌 조율의 후퇴일 뿐, 실제 진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
이미 EU ETS, FuelEU Maritime, 중국·아프리카·싱가포르 등의 지역 규제체계가 해운 탈탄소화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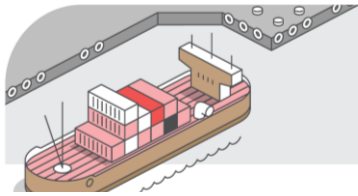
▶ LNGc

▲ TotalEnergies는 모잠비크 LNG 재개 결정.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17척 부활

프랑스 TotalEnergies가 약 4년 반 동안 중단됐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200억달러)를 재개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17척의 LNG선 신조 발주도 함께 재개될 예정임
TotalEnergies는 "모잠비크 LNG 컨소시엄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해제하기로 결정했고, 모잠비크 대통령실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힘
프로젝트의 최종 재개 전 단계로, 모잠비크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가 예산 및 일정이 갱신된 개발계획(addendum)의 승인 대기
2021년 4월에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치안이 악화된 카보델가두(Cabo Delgado) 지역의 사태로 인해 TotalEnergies와 파트너들이 불가항력 선언을 하며 중단
12.9MTPA LNG 액화 용량에서, 당시 17척의 LNG선 신조선 계약도 보류되었으며, 해당 선박은 4개 선주와 2곳의 한국 조선소(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예정이었음
두 조선소는 그동안 건조 슬롯(slot) 확정 시한을 여러 차례 연기했고, 최종 결정 시한은 다음 주로 예정
최근 2년간 TotalEnergies는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으며, 이 사업은 모잠비크 경제에 변혁적 영향을 줄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로 평가
TotalEnergies CEO는 2023년 3월, 직접 카보델가두 지역을 비공식 방문해 현지 상황을 확인한 바 있음
2025년 3월에도 미국 수출입은행(US EXIM Bank)이 47억달러 규모의 대출 재승인을 결정하며 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음
이 대출은 원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승인된 핵심 프로젝트 자금
TotalEnergies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LNG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 재개에 적
다만 지역 치안 불안과 원가 상승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함
지분구조는 TotalEnergies 26.5%, Mitsui (일본) 20%, ENH (모잠비크 국영) 15%,
Bharat Petroleum, Oil India, ONGC Videsh (인도) 각 10%, PTTEP (태국) 8.5%

△ IEA는 2030년까지 역사상 최대규모 LNG 공급, 가스가격 안정화 전망 제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LNG 공급이 역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가스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전망
연간 3,000억m(Bcm)의 신규 LNG 수출능력이 2030년까지 추가될 전망. 미국과 카타르가 전체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
공급 확대로 인해 수요 증가 속도를 초과, 2030년경 약 650억m(Bcm) 규모의 일시적 공급 과잉(temporary surplus) 발생 예상
이에 따라 현물 LNG 가격이 단기 한계비용 수준(8~8.5달러/MBtu) 까지 하락 가능
이는 2022~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고가 수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가격 민감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전력·산업·운송용 수요자)에서 LNG 수요 회복 기대
일부 국가는 2022~2023년 가격 급등기에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공급 확대가 재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2030년 기준 글로벌 가스 수요는 기준 시나리오 +9%(+380Bcm), 고수요 시나리오 +10%(+450Bcm)로 제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체 증가의 50%를 차지, 중국 단독으로 25% 기여
유럽은 -10% 감소 예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스 의존도 축소
포트폴리오 사업자(중개형 거래자) 비중이 2016년 26% → 2030년 44%로 증가 예상
목적지 제한이 없는(destination-flexible) 계약 비중도 2030년 52% 에 달할 전망
이는 LNG 거래의 유연성 확대 및 시장화 심화를 의미함
2025년은 LNG 프로젝트 투자결정(FID) 사상 최대치 기록, 특히 미국에서만 연간 900억m 규모 신규 설비 승인
이에 따라 미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LNG의 약 1/3을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할 전망



▲ 삼성중공업 KC-2C를 개조로 적용 성공

삼성중공업이 국산 LNG 화물창 시스템(KC-2C)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적용해 충돌사고로 손상된 LNG 벙커링선 수리 작업을 완료
 향후 기준선 개조(레트로핏) 및 대형 LNG선 적용 계획을 추진
 이번 수리는 한국해운(Korea Line Corp)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7,500-CBM급 LNG선에 KC-2C 화물창을 장착
 대상 선박은 7,654-CBM LNG선 및 벙커링선 SM Jeju LNG1(2019년 건조)로 확인
 KC-2C 시스템은 한국가스공사(KOGAS)의 기존 국산 화물창 KC-1의 개선형 버전으로, 삼성중공업이 기술 신뢰성을 입증한 첫 사례로 평가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는 국산 LNG 화물창 기술 개발의 "중대한 진전(breakthrough)"으로 평가
 SM Jeju LNG1의 사고 경위는 2024년 2월, JL Ocean이라는 화물선과 충돌해, LNG선 우현부에 구멍 발생 및 가스 누출 보고
 이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수리 및 KC-2C 개조작업 수행했고
 2025년 10월 기준, 약 1년 8개월 만에 운항 재개 (Kpler 데이터 기준)
 SM Jeju LNG1 / LNG2(2020년 건조)는 한국해운 소유, KOGAS와 20년 장기용선 계약 체결되어 제주도 LNG 공급선으로 운영 중
 프랑스 GTT가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시장을 독점해온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KC LNG Tech Co.를 통해 KC-1 시스템을 독자 개발함
 KC-1은 174,100-CBM급 LNG선 SK Serenity와 SK Spica(2018년 건조)에 최초 적용됐으나,
 SK Serenity는 미국에서 2회 운항 후 선체 결빙(ice formation) 문제로 운항 중단되었고, SK Spica는 상업 운항에 투입되지 못함
 이후 KOGAS, 삼성중공업, SK해운(SK Shipping)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
 두 선박은 2024년 현재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장기 계류(lay-up) 상태이며 매각 대상으로 시장에 나옴
 KC-2C 시스템은 2024년 10월 LNG 벙커링 바지선 Green Nuri에도 적용되어 파일럿 운항 테스트를 수행했고
 이번 SM Jeju LNG1 수리 성공으로 기술 안정성을 확보, 향후 대형 LNG선 적용을 본격화할 계획
 ≡ 문제가 되었던 KC-1이고, 이번엔 KC-2를 실전 적용합니다.

▲ 미국의 Excelerate Energy가 이라크 최초의 FSRU 공급

미국의 Excelerate Energy가 이라크와 LNG 수입 터미널 개발 계약(4.5억달러 규모)을 체결하고, 보유 중인 유일한 FSRU 신조선을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결정
 HD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170k-CBM FSRU로 2026년 6월 인도되고, 즉시 이라크 Khor Al Zubair 항만에 배치
 이라크 전력부 산하 기관과 Excelerate 간의 상업 협정(commercial agreement) 체결
 재기화 및 LNG 공급 계약 기간 5년+연장옵션, 하루 최소 2억5,000만SCF(standard cubic feet)의 LNG 공급 보장
 FSRU 전체 재기화 능력 1,000MMscf/d에, 터미널 보장 처리용량 500MMscf/d
 Excelerate는 상부 설비(topside equipment) 설치 및 부두 개조공사(berth modification)를 직접 수행
 총 투자액은 FSRU 포함 약 4.5억달러
 이라크 최초의 LNG 수입 인프라 구축이며, 글로벌 LNG 시장 직접 접근 가능
 기존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의존도 축소, 연료 믹스 다변화 및 전력수요 대응력 강화
 Excelerate의 중동지역 첫 통합형 부유식 LNG 수입·공급 프로젝트로,
 터미널 개발 + LNG 공급 + 운영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
 ≡ 건조 FSRU가 용선되었으니, 후속 발주를 기대합니다.

▲ 노르웨이의 EConnect Energy는 노후 LNG선을 LNG-FSU로 개조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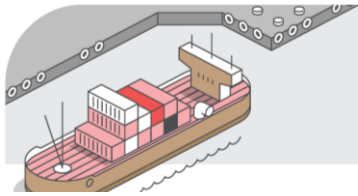
노르웨이의 기술개발사 EConnect Energy가 중고 LNG선을 매입해 FSU(부유식 저장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
 목표는 자체 'Quay Regas Terminal' 시스템에 FSU를 결합한 신규형 Jettyless LNG 수입 솔루션 구축
 현재 2건의 pre-FEED(기본설계 전 단계) 프로젝트 수행 중이며,
 모두 iQuay 시스템의 R-Class/F-Class를 활용한 부유식 LNG 공급·재기화 설비 패키지로 개발 예정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존 가스 인프라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추진 중
 파장이 큰 열악한 해상환경으로, 일반적인 STS(Ship-to-Ship) 방식이 어려운 지역
 EConnect은 C-Class(계류·호스·전달라인 통합 플랫폼)과 R-Class(저장선-육상 간 전송용) 시스템 제공 계획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해안과 가까운 평온한 환경, 기존에 FSRU 확보를 추진 중이던 개발사와 협력
 중남미 지역에 위치, pre-FEED 단계 거의 완료
 iQuay Regas Terminal 시스템은 FSU + 재기화 모듈 플랫폼(R-Class) + 계류 및 해저/부유식 송가스 라인으로 구성되며, 계약 체결 후 20개월 내 설치 가능
 FSRU 신조나 개조 없이 현장 근처에서 조립 가능, 소형~중형(최소 100MMscf/d 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비용 효율형 대안
 EConnect은 현재 FSU로 활용 가능한 LNG선 매입 시점 및 후보선 조사 중
 직접 speculative(투기적) 매입 여부는 아직 미정
 iQuay 시스템 2기를 2024년부터 상업운영 중. 멕시코 알타미라(Altamira)는 New Fortress Energy의 FLNG 생산 플랫폼과 FSU 간 연결
 독일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은 1.7km 부유식 호스를 통해 LNG 재기화 후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육상 전송
 EConnect은 2012년 '차고 스타트업(garage start-up)'으로 출범, 현재 독일 천연가스 소비량의 8.5%를 iQuay 시스템을 통해 공급 중
 장기적으로는 기술 공급뿐 아니라 자산 직접 보유·운영(own & operate) 모델로 전환 목표

▲ 그리스 CCEC는 2027년 인도 LNG선 10년 용선계약 체결

그리스 선주 Evangelos Marinakis가 이끄는 Capital Clean Energy Carriers (CCEC)가 174,000-CBM LNG선 신조선 1척을 ConocoPhillips와 10년(2038년까지)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
 해당 선박은 HD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 중인 Athlos호(2027년 인도 예정)
 2028년 1분기부터 7년 + 1 + 1 + 1년 연장 옵션
 CCEC는 2020~2024년 인도된 LNG선 12척을 보유·운항 중
 주요 용선처는 Nigeria LNG, QatarEnergy, Tokyo LNG Tanker, JERA, BP Shipping, Cheniere Energy, Hartree Shipping, Engie 등
 이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잔고(backlog)는 44억달러, 평균 용선기간 9.8년, 향후 용선 행사 시 수익 안정성 더 강해짐
 과거 컨테이너선 13척 매각(매각대금 총 6억9,400만달러) 후, 순수 가스선 전문 선주로 사업 전환 완료
 2026~2027년 인도 예정 LNG선 6척, LPG/암모니아선 6척, 액화 CO2/멀티가스선 4척 건조 중

▲ 카타르 Nakilat LNG선 25척에 KEXIM 금융조달 완료

카타르의 LNG선 선주사 Nakilat이 2026년부터 인도될 예정인 LNG선 25척 신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KEXIM)으로부터 금융 조달 계약을 체결
 LNG선 확장 프로젝트는 2026년 말 첫 선박 인도 예정이고
 현재 72척 선대는, 최종 112척으로 확대 예정
 현재 보유 선박 구성은 LNG선 69척, LPG선 2척, FSRU 1척 등
 이 중 9척은 기존 스텐터빈 추진선(비효율 구형선)으로, 신형 LNG선으로의 대체가 예상



다올 선박

2025.11.02 [795호]

DAOL 다올투자증권

▽ Commonwealth LNG는 LNG 수출터미널 건설기한 4년 연장 승인

미국 LNG 개발사 Commonwealth LNG가 루이지애나 LNG 수출터미널 건설기한을 4년 연장하는 요청을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로부터 승인받은
 기존 인허가 만료기한 2027년 11월 →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
 Commonwealth LNG(운영사: Kimmeridge Energy)는 2025년 10월 2일 FERC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적 분쟁 및 미 에너지부(DoE) 인허가 지연 등 통제 불가능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
 FERC는 연장 승인 발표 시, 공청회 기간 중 어떠한 반대 의견·이의 제기·항의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힘
 Commonwealth LNG 프로젝트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9.5MTPA 액화용량, 운영은 Kimmeridge Energy가 담당
 사업 지연은 직전, 루이지애나 주 법원이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받아들여 주(州) 인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
 환경단체는 루이지애나 주 에너지·천연자원국(현 보존·에너지부)이 연안 생태계·기후변화·폭풍 강도(storm severity)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
 루이지애나 법원은 환경영향 검토 미흡으로 주 인허가 취소하고, 재심의 명령
 ⇒ 2029~2030년에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 완공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N/A

▶ 컨테이너선

N/A

▶ 탱커

▲ 러시아 제재 끝나도, 탱커는 이중 구조로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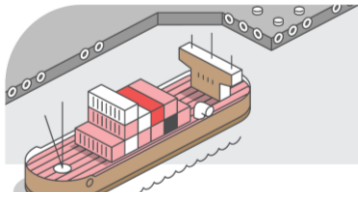
그리스 Xclusiv Shipbrokers는 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경우 탱커 시장이 '이중 구조(two-tier market)'로 재편될 것"이라 전망
 제재 해제 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선박들은 정상 시장 복귀가 어렵고 운임 상승 혜택에서도 배제될 것으로 분
 전 세계 제재 선박 수는 총 1,387척, 탱커가 1,004척으로 전체의 72%
 그외에 가스선 65척, 일반화물선 206척, 나머지는 컨테이너선·벌크선 등
 평균 선령 20.4년, 대부분 노후 고위험 선박군으로 분류
 주요 국적은 러시아, 코모로, 시에라리온, 이란, 오만, 파나마, 북한, 팔라우, 탄자니아 등도 포함
 감독 느슨한 해운기국(flag of convenience)에 집중
 린자 선단(Shadow Fleet)의 특징은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산 원유 운송에 집중된 '비공식 네트워크'로
 보험·검사·클래스 인증 체계 밖에서 운영. 정비기록·도크이력 불투명으로 기술적·안전적 신뢰성 저하
 이들은 "규제회피 목적의 등록 및 소유 구조로 인해 투명성이 극히 낮다"고 지적
 "제재 해제 후에도 정상 시장 복귀는 어렵고, 대부분 폐선 또는 장기 계선될 가능성 높다"고 예상
 17년 이상 노후 탱커는 보험·용선·클래스 재인증 불가 가능성 높음. 다수는 해체(폐선) 또는 장기 계선(lay-up) 예상
 이로 인해 전 세계 유조선 공급은 감소, 합법적(정상) 시장 내 운항 선박의 운임과 자산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결과적으로 '이중 시장(bifurcated market)' 출현 예상되며,
 현대적·보험가능 선박 운항·용선·가치 프리미엄이 불고, 노후·비공식 선박 시장 퇴출 및 가치 급락 예상
 영국 중개사 Gibson에 따르면, 중국 내 1일 125만배럴 규모의 정제능력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됨
 인도·터키 정유사도 유럽항 제품 수출 유지 위해 러시아 원유 수입 축소 필요
 이로 인해 터키 수입 감소분은 리비아·Ceyhan 등 역내 공급으로 대체될 전망
 수혜 선종 Aframax, 그 다음은 Suezmax,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참여하던 선박들이 일반 시장 복귀 가능성 커짐

▲ VLCC 시황,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

일주일 새 운임 62% 폭등하며 시장이 'pick-a-number(부르는 게 값)' 국면에 진입
 VLCC 운임은 팬데믹 이후 최고치, 하루 13~17만달러대 다수 거래
 인도·중국·쿠웨이트 등 아시아 수요 폭발, 중동항 화물 집중되고,
 Clarksons·Fearnleys 모두 단기 급등 아닌 '실질적 강세 전환' 평가
 겨울 성수기 진입 + 제한된 선박공급 → VLCC 시장 초강세 지속 예상
 Embiricos Group의 297,000-DWT Skopelos(2010년 건조) → Indian Oil Corp에 하루 167,000달러에 용선
 이번 거래가 이번 주 VLCC 시장 최고 운임 기록
 Frontline도 299,000-DWT Front Otrra(2016년 건조) → Unipeck(중국)에 125,000달러/일
 Adnoc Logistics & Services의 300,000-DWT Das(2019년 건조) → Kuwait Petroleum Corp(KPC)에 134,000달러/일 등
 Clarksons Securities는 예코선 기준 평균 운임 131,600달러/일로, 24시간 내 30% 급등
 통상 급등 시에는 거래 실패가 잦지만, 이번엔 실제 체결 건수가 많아 단기 반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Fearnleys (노르웨이 중개사)도 중동 지역에서 선박과 화물의 공급·수요가 거의 1:1로 맞물리며 공급 부족 현상
 이제는 '부르는 게 값(pick-a-number)' 단계 진입
 운임 급등 요인은 1) 중동·미국항 화물 폭증, 2) 가용 VLCC 감소, 3) 겨울철 수요 시즌 진입으로 수급 긴장 심화
 이번 급등은 단기 현상이 아닌, 겨울 수요와 항로별 선박 재배치가 맞물린 구조적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그리스 TMS는 중국 Hengli에 VLCC 4척 발주 협상

그리스 선주 George Economou이 이끄는 TMS Group은 중국 Hengli Shipbuilding에 VLCC 최대 4척 신조 계약 추진하며, 최근 이어지는 VLCC 발주 러시아에 합류
 인도 시기는 2027~2028년에, 신조선가는 118백만달러(클락스 126백만달러)로 전망
 TMS는 2017년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필리핀)에 320,000-DWT VLCC 4척(신조선가 75백만달러) 발주 시도했으나, 조선소의 환급보증 미확보 및 시장 침체로 계약 무산된 바 있음
 이후 주로 벌크선(Newcastlemax·Kamsarmax), LNG선, VLGC, 수에즈막스,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 발주 확대
 Hengli Shipbuilding은 대규모 건조 능력, 조기 인도 슬롯 때문에 중국 내 '핫 플레이어(hot favourite)' 조선소로 평가
 현재 홍보 중인 선종 VLCC, 수에즈막스, 컨테이너선, 캄사르막스,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등
 Hengli는 최근 1개월 동안 13척의 VLCC를 계약. 주요 유럽 선주 대거 참여
 전부 기존 연료(Conventional Marine Fuel) 추진 방식으로 건조 예정이며, 적당 118백만달러의 낮은 선가 제시
 Seatankers(John Fredriksen), Dynacom(George Procopiou), Capital Maritime(Evangelos Marinakis), Alimia Group(Thanassis Laskaridis), Seatankers·Dynacom이 초기 발주자
 Economou는 현재 탱커·벌크선·가스선 등 다각화된 선단 운영. TMS Group은 현재 44척 신조선을 한국·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



▲ 그리스 JHI Steamship는 일본을 벗어나 K조선에 탱커 3척 발주

그리스 선주 John Inglessis가 이끄는 JHI Steamship는 전통적으로 일본 조선소만 이용하던 관행을 깨고 한국 K Shipbuilding에 아프리카막스 탱커 최대 3척 발주, 250백만달러 115k-DWT 컨테이너널 추진 아프리카막스 탱커 2척 + 옵션 1척, 2027년말~2028년초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75백만달러 JHI Steamship은 2025년 여름, Samos Steamship을 공동 운영하던 John Inglessis와 Anthony Inglessis 사촌이 분리 경영 체제로 전환 John Inglessis → JHI Steamship 설립, Anthony Inglessis → Carlova Maritime 설립 JHI Steamship은 현재 LR2 탱커 1척 + 벌크선 5척을 보유 중 일본 조선소에서 Capesize 2척 (Japan Marine United), Kamsarmax 1척 (Oshima Shipbuilding), Aframax 1척 (Sumitomo Heavy Industries)을 건조 중 일본 토티어 조선소 중심의 선대 확장 전략"을 유지해 왔으나, Sumitomo가 상업선 사업 철수 후 해상풍력 등 신재생 해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K조선을 선택 K조선은 MR탱커 및 아프리카막스 탱커 중심의 중형 조선소. 현재 잔고는 총 26척 2016년 STX조선의 법정관리로 컨소시엄(KH Investment + Uamco)에 2022년에, 95%를 2,500억원에 매각 소유주 컨소시엄(KH Investment + Uamco)은 약 5,000억원에 매각 추진 중

▶ 오프쇼어/디펜스

▲ QatarEnergy는 NFPS의 COMP 5 곧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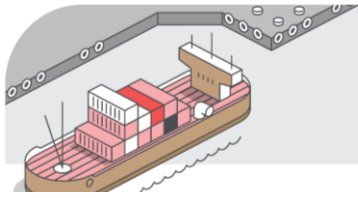
카타르 국영 QatarEnergy LNG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인 North Field의 생산 지속성 프로젝트(NFPS) 중 5번째 단계(COMP 5) 계약 결정을 앞둔 50억달러 이상 사업 추정. 11월 내 낙찰자 선정 예정 HD현대중공업, 미국 McDermott International, 인도 Larsen & Toubro (L&T), 이태리 Saipem + 중국 COOEC 컨소시엄의 4곳이 경쟁 기술 제안서는 2025년 초 제출 완료했고, 상업 제안서도 10월 제출. QatarEnergy LNG가 평가 중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후보가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특정 우선후보는 아직 없음 COMP 5 프로젝트는 COMP 4(이전 단계)와 유사한 범위 COMP 4는 2025년 초 L&T가 수주, COMP 3A·3B(40억달러)는 Saipem이 수주 일반적으로 각 단계에는 2기의 대형 해상 압축 플랫폼, 플레어 플랫폼, 교량(Bridge), 숙소 및 부속 설비 등이 포함 COMP 5도 유사한 EPCI(설계·조달·시공·설치) 범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 사양은 미확정 6,000~7,000톤급의 6기 플랫폼, 100km 길이의 CRA 파이프라인(24~28인치), 150km 광케이블 및 부속 해저 설비를 포함 North Field는 이란과 공유하는 세계 최대 비연관 천연가스전(Non-associated gas field) QatarEnergy는 NFPS(생산 지속 프로젝트)와 North Field East, South, West 확장사업을 병행 중 North Field West (NFW) 단계는 2024년 2월 발표되었고, 서부 해양 생산설비 + 라스라판(Ras Laffan)에 8MTPA 규모 액화 트레인 2기 건설 계획 QatarEnergy의 전체 LNG 생산능력은 2030년까지 142MTPA로 확대될 전망 이는, 2024년 대비 80% 이상 증가이며, 미국·호주와 함께 세계 3대 LNG 수출국 지위 유지 예상 → HD현대중공업의 양질의 수주를 기대하며, → 관련 LNG선 시리즈 발주도 기대합니다.

▲ 한국 조선 BIG3는 미국 조선산업 투자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 '빅3'(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으로부터 미국 조선산업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 이번 약속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무역·안보 협정의 핵심 성과로 포함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Cerberus Capital Management와 공동으로 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 현대화 프로그램 추진 KDB(산업은행)도 파트너로 참여해,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그램의 핵심 파트너 투자는 1) 미국 조선소 설비 현대화 및 기술 협력 강화, 2) 자율운항 등 첨단 조선 기술 적용, 3) 미국 조선 공급망(supply chain) 복원 및 인력 양성 삼성중공업도 미국 조선그룹 Vigor Marine Group과 협력해 1) 해군 함정 정비·수리·개조(MRO), 2) 조선소 자동화, 3) 미국 국기(US-flagged) 상선 신조 프로그램 공동 개발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Philly Shipyard) 를 기반으로 5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실행 조선소 생산능력 10배 이상 확대, 현지 인력 고용 및 기술훈련 강화, 미국 내 대형 상선·해양플랜트 건조 중심지로 육성 한국가스공사(KOGAS)도 미국산 LNG 3.3MTPA 구매에 합의 공급처는 Cheniere Energy, Trafigura, TotalEnergies 등. 계약기간: 10년 백악관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조선소 현대화, 기술 인력 협력, 공급망 강화가 이뤄질 것."이며 "이번 협정은 미국 내 조선산업 역량을 재건(MASGA) 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 파트너십이다."라고 발표 트럼프도 "한국은 조선의 마스터다(Master of Shipbuilding). 한국과 함께 미국 조선산업을 최고 수준으로 되살리겠다." "한국과의 협정으로 '수조달러(Trillions of Dollars)' 규모의 투자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랑 트럼프의 일본 방문에서도 조선 관련 협력이 언급됐으나, 구체적 기업 참여는 명시되지 않음 단지 "양국이 조선소 투자·조달·인력·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MOC(협력각서) 를 체결했다"는 수준에 그침

▲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요청에, 트럼프 긍정적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무장 목적이 아닌, 장시간 잠항 능력 보완용 핵연료 공급 허용"을 미국에 공식 요청 "디젤 잠수함의 작전시간 한계를 보완해 북한·중국의 잠수함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자체 잠수함을 건조·운용하면 미군 부담도 경감된다"고 언급 이는 동맹 현대화 및 대중 견제 명분을 통한 안보 이익 확보 전략으로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하루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승인 의사를 발표 또한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 내 건조까지 승인했다고 밝힘 승인 조치는 영국이나 호주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극비 군사기술에 대한 전례 없는 제공 실제 기술 이전이나 핵연료 공급 문제 등은 아직 한미 간 실무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 미국 국무부의 에너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아, 미국 내 핵비확산 관련 세력과 실무 당국은 아직 뚜렷한 정책 변화까지는 명확하지 않음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정치적 승인' 또는 '원칙적 합의'로 해석되며, 실제 실행까지는 기술적·법적 협의가 추가로 필요



▶ 기사

▽ 중국과 미국이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

오는 목요일 한국에서 예정된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에서 공식 무역합의 발표가 기대
 협상 주제는 Section 301 제재, 관세 유예, 희토류, 팬타닐 단속, 농산물 무역
 합의 수준은 "초기 합의(initial consensus)" → 정상회담 시 "정식 무역합의 발표" 가능성
 미국의 해운·조선 관련 제재 완화, 미·중 무역 안정 신호
 조선업에서는 논의 의제 중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 부문에 대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제재가 관심

▽ ICS는 미국과 중국 간 항만수수료(port fee) 상호 유예 합의에 환영

국제해운회의소(ICS)는 "미국의 Section 301 조치에 따른 항만수수료 1년 유예 및 중국의 보복조치 동시 중단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
 10월 14일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관련 해운·물류·조선업체 및 중국산 외 건조PCTC에 항만수수료 부과(Section 301 근거) 조치를 시행
 이에 중국 정부가 미국 연계 선박에 맞대응 수수료 부과로 보복
 10월 30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통해 양국이 1년간 항만수수료 부과를 상호 중단하기로 합의
 이후 중국 측이 먼저 유예 사실을 발표,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Fox Business 인터뷰를 통해 합의 확인
 "항만수수료의 위협만으로도 중국 조선소의 잔고(orderbook)가 크게 감소했다."며
 "미국은 이미 한국·일본과의 조선협력 투자계약을 통해 서방 동맹국들과 조선산업 통합을 추진 중"이며
 "한국은 훌륭한 조선국이며,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MASGA) 할 것."이라고 설명
 ICS는 전 세계 선주협회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이번 합의가 "세계 해운산업의 공급망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무역 안정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향후 합의 세부사항 및 공식문서 발표를 기대한다고 밝힘

▽ 그리스 Efnav, 중국 Hengli Shipbuilding에 캄사막스 벌크선 6척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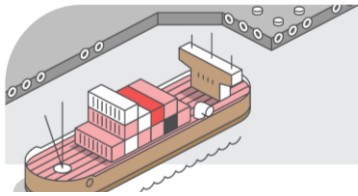
82,000-DWT 캄사막스 벌크선 6척. 인도 시점은 미공개
 IMO 최신 배출규제 충족 친환경 연료선이며, 신조선가는 36.25백만달러
 Efnav의 5년 만의 신조 발주. Hengli에 신조 발주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2019년에는 일 합작 조선소 NACKS (Nantong Cosco KHI Engineering)에 캄사막스 1척을 발주해서 2021년에 인도
 Efnav는 벌크선 15척을 보유. 2025~2026년에 STX조선이 건조한 4척 포함

△ 미국-중국 간 무역협상 재개 및 '관세·항만수수료 유예' 합의는 VLGC에 긍정적

Fearnley Securities (노르웨이)는 서로 보복관세를 유예한 '관세 휴전(truce)' 연장 가능성 높음
 상호 항만수수료(port fees) 철회 또는 완화도 협상 의제에 포함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연장과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구매 재개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짐
 미·중 관세 불확실성 완화로 운임시장 부담 해소. 항만수수료 완화 시 비용 감소 및 항만 혼잡 완화 효과 예상
 최근 중동-아시아 항로 VLGC 운임이 36,200달러/일(주간 -21%)로 하락
 다만 11월 선적분 계약 증가세, 동부시장 회복 조짐 관측
 미국 걸프항로 운임 45,200달러/일 (주간 -8%)로, 11건의 신규 용선 계약 체결,
 공선(ballast) 선박 입항 증가로 화물 확보 경쟁 심화
 벌크선 시장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중형 벌크선에 긍정적
 라틴아메리카 곡물 수확철 강세로 상반기 부진 이후 시장 반등세 유지
 Fearnley Securities는 "중국의 항만수수료 부과는 협상용 압박 카드였으며,
 이번 합의로 양측 모두 수수료 철회 혹은 완화 가능성 높다고 분석
 해운기업의 비용 절감과 물류 병목 해소로 순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

△ PCTC 선사 Hoegh 70백만달러 비용 부담 회피

미국-중국 간 상호 항만수수료 부과 조치가 2025년 10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양국 정상회담(한국 경주 APEC 계기)에서 1년간 상호 유예(ceasefire) 합의가 이뤄짐
 중국 상무부도 "양국은 항만수수료 시행을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을 발표
 미국안은 최초 제안이 순톤당(net tonne) 14달러에서, 10월 10일 갑작스레 46달러/톤으로 3.3배 인상
 적용대상 중 자동차운반선(Car Carrier)의 경우 중국 건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선박에 일괄 적용 예정이었음
 미국-중국 항만수수료 1년 유예 합의로 Hoegh는 약 7천만달러 비용 부담 회피 가능
 미국 항로 축소·화물 통합 전략으로 비용 최소화 추진해왔고
 항만수수료 제도는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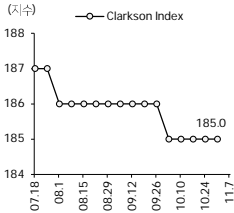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11.02 [7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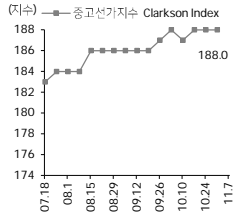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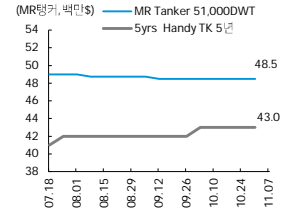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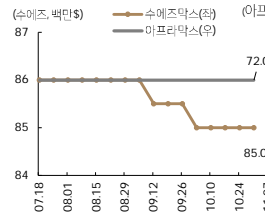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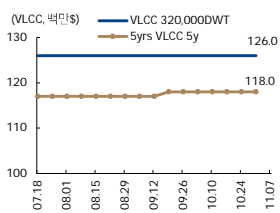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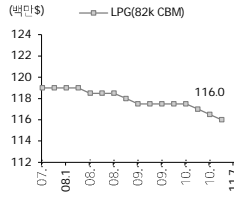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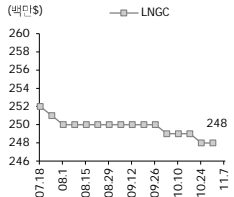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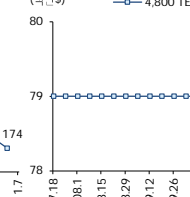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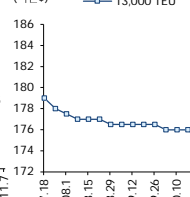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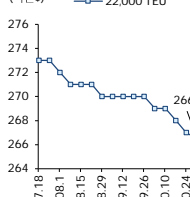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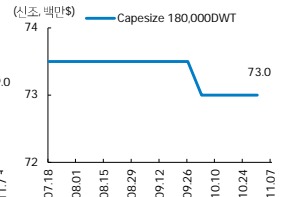
▶ 가스선들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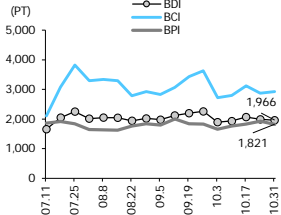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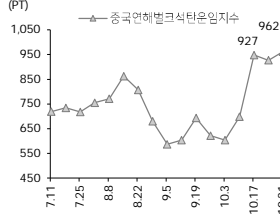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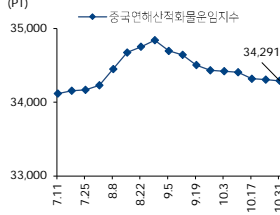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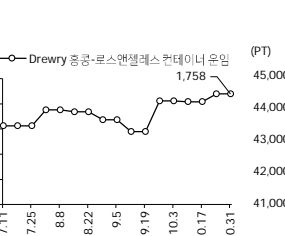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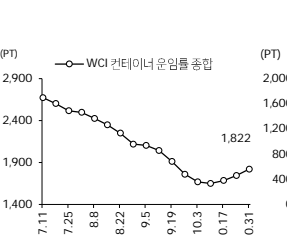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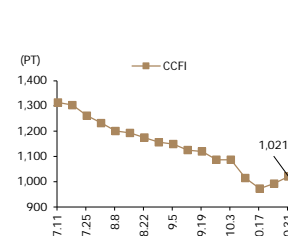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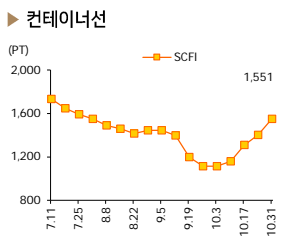
▶ 중국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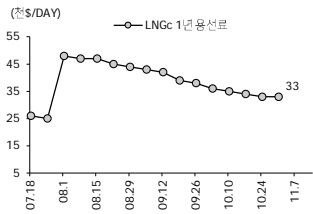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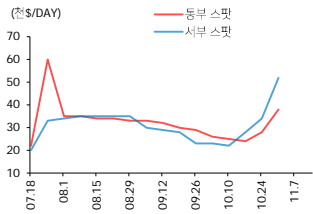


운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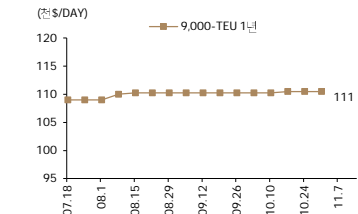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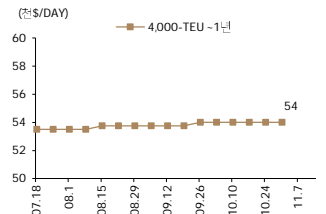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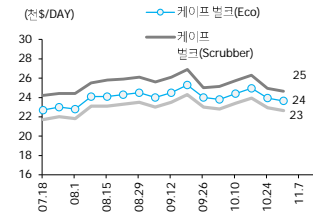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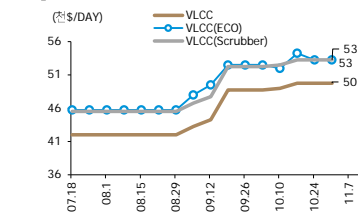
▶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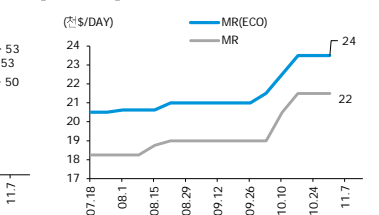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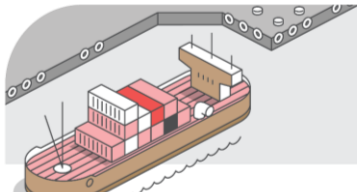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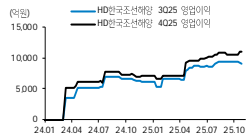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11.02 [7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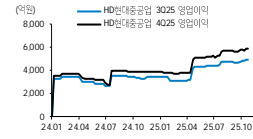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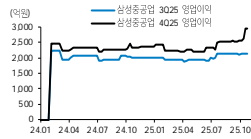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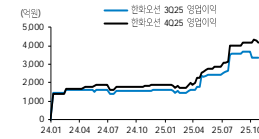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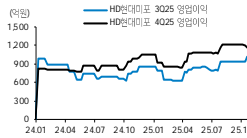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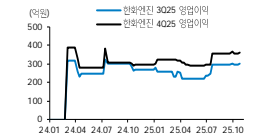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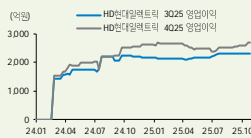
▶HD현대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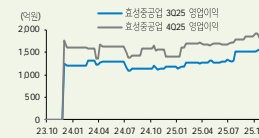
▶한화엔진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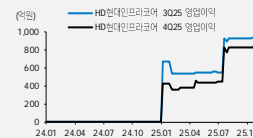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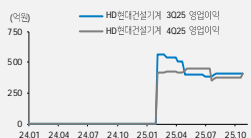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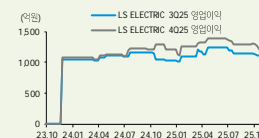
▶HD현대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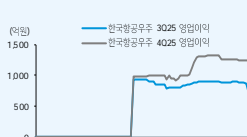
▶HD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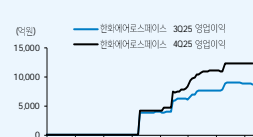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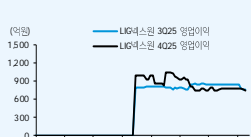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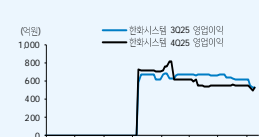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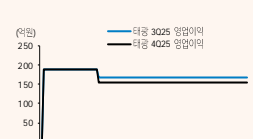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성광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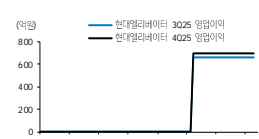
▶태광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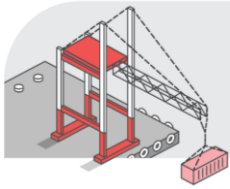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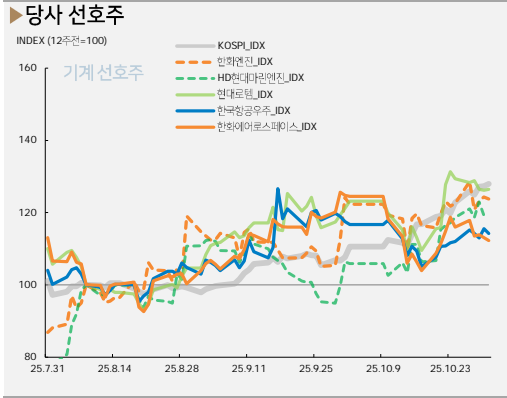
그룹	종목	2025 EPS(원)										Chang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10.04	25.10.11	25.10.18	25.10.25	25.10.31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25 PER	총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30,767	31,420	33,087	31,783	31,864	32,130	31,697	31,921	31,921	0%	0%	14.8	474,000		
	HD현대중공업	14,244	15,004	15,135	14,815	14,973	15,032	14,865	14,632	14,632	1%	-2%	41.0	600,000		
	삼성중공업	564	560	696	700	747	752	776	779	784	2%	2%	37.7	29,550		
	한화오션	2,420	2,511	2,709	3,112	3,192	3,157	3,148	3,126	3,163	2%	1%	43.5	137,600		
조기	HD현대미포	6,050	6,099	6,134	6,068	6,049	6,026	5,995	6,233	6,277	2%	1%	38.5	241,500		
	한화엔진	982	968	1,166	1,166	1,183	1,165	1,177	1,177	1,133	3%	4%	43.6	49,400		
	STX엔진	648	648	648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0%	0%	27.1	35,350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320	1,277	1,332	1,706	1,735	1,735	1,789	1,789	1,789	5%	3%	55.5	99,300		
	HD현대인프라코어	5,665	5,665	5,254	4,896	4,896	4,896	4,896	4,901	5,511	1%	2%	18.1	100,000		
	두산발켓	731	748	895	913	913	913	866	866	887	1%	3%	17.2	15,240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5,423	5,459	5,467	5,124	5,054	5,054	5,054	5,054	4,687	0%	-7%	12.9	60,300		
	HD현대일렉트릭	547	529	456	452	444	444	444	444	429	0%	-4%	206.8	88,700		
	LS ELECTRIC	18,905	18,905	18,617	18,693	18,795	18,823	18,720	19,384	19,408	0%	3%	44.8	870,00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11,093	11,124	10,030	10,010	10,017	10,005	9,881	9,593	9,515	0%	-5%	45.7	435,0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492	2,531	2,510	2,670	2,630	2,630	2,577	2,546	2,519	0%	-4%	41.0	103,400		
	LIG넥스원	35,068	35,098	31,558	31,478	32,830	32,830	34,242	33,743	33,265	1%	1%	29.4	979,000		
피팅	한화시스템	13,017	13,442	13,836	14,472	14,368	14,368	14,359	14,258	14,330	1%	0%	36.2	519,000		
	현대로템	1,031	1,023	1,086	990	990	990	975	955	932	0%	-6%	64.3	59,900		
	현대엘리베이터	6,366	6,911	7,071	7,245	7,380	7,380	7,472	7,475	7,476	0%	1%	30.8	230,500		
타이머	태광	6,840	6,840	8,552	8,552	8,552	8,552	8,552	8,552	8,552	0%	0%	8.9	75,700		
	성광밴드	1,846	1,844	1,659	1,525	1,496	1,442	1,442	1,442	1,442	0%	-4%	21.8	31,500		
	하이록코리아	1,959	1,879	1,547	1,613	1,663	1,702	1,702	1,702	1,702	2%	2%	16.6	28,250		
하이록코리아	3,644	3,644	3,644	3,644	3,804	3,804	3,804	3,804	3,804	0%	0%	9.8	37,200			

그룹	종목	2025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10.04	25.10.11	25.10.18	25.10.25	25.10.31	2025	2026	2025 PBR	2026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182,327	182,250	183,176	181,647	181,475	181,344	180,932	182,503	182,503	17%	23%	2.6	8.0	
	HD현대중공업	74,891	75,843	75,760	75,595	75,783	75,602	75,429	75,429	75,429	19%	31%	8.0	8.0	
	삼성중공업	6,103	6,113	6,275	6,270	6,268	6,218	6,243	6,135	6,138	13%	19%	4.8	4.8	
	한화오션	18,341	18,454	18,624	19,025	19,088	19,050	19,051	19,027	19,069	17%	21%	7.2	7.2	
조기	HD현대미포	56,563	56,515	56,677	56,356	56,348	56,303	56,275	56,670	56,670	11%	18%	4.3	4.3	
	한화엔진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21%	31%	9.3	9.3	
	STX엔진	8,298	8,298	8,298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15%	62%	4.4	4.4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0,818	10,966	10,941	11,040	11,090	11,090	11,189	11,189	11,189	16%	30%	8.9	8.9	
	HD현대인프라코어	100,299	100,299	101,410	102,916	102,916	102,916	102,916	102,993	103,412	5%	9%	1.0	1.0	
	두산발켓	72,312	73,000	73,206	75,292	75,569	75,569	75,569	75,569	73,710	6%	8%	0.8	0.8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10,133	10,174	10,471	10,668	10,668	10,668	10,668	10,640	10,602	8%	12%	1.4	1.4	
	HD현대일렉트릭	12,700	12,696	12,437	12,463	12,426	12,424	12,424	12,424	12,277	3%	7%	7.2	7.2	
	LS ELECTRIC	56,634	56,634	54,755	54,834	54,945	54,928	54,793	55,294	55,569	35%	40%	15.7	15.7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69,789	69,740	68,409	68,409	68,414	68,347	68,264	68,158	68,057	14%	18%	6.4	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622	19,678	19,568	19,668	19,627	19,627	19,569	19,573	19,491	13%	18%	5.3	5.3	
	LIG넥스원	175,864	168,578	155,840	164,645	170,261	170,261	174,026	175,008	172,268	19%	24%	5.7	5.7	
피팅	한화시스템	66,072	66,204	66,690	66,674	66,548	66,548	66,573	66,645	66,706	21%	25%	7.8	7.8	
	현대로템	14,059	14,015	14,043	15,469	15,469	15,469	16,654	16,363	16,841	6%	8%	3.6	3.6	
	현대엘리베이터	24,996	25,426	25,560	25,678	26,203	26,203	26,506	26,571	26,512	28%	31%	8.7	8.7	
타이머	태광	35,782	35,782	39,414	39,414	39,414	39,414	39,414	39,414	39,414	22%	23%	1.9	1.9	
	성광밴드	21,067	21,956	21,579	21,466	21,460	21,400	21,400	21,400	21,400	7%	9%	1.5	1.5	
	하이록코리아	23,633	23,633	22,839	22,982	23,056	23,128	23,128	23,128	23,128	7%	9%	1.2	1.2	
하이록코리아	37,176	37,176	37,176	37,176	39,135	39,135	39,135	39,135	39,135	10%	11%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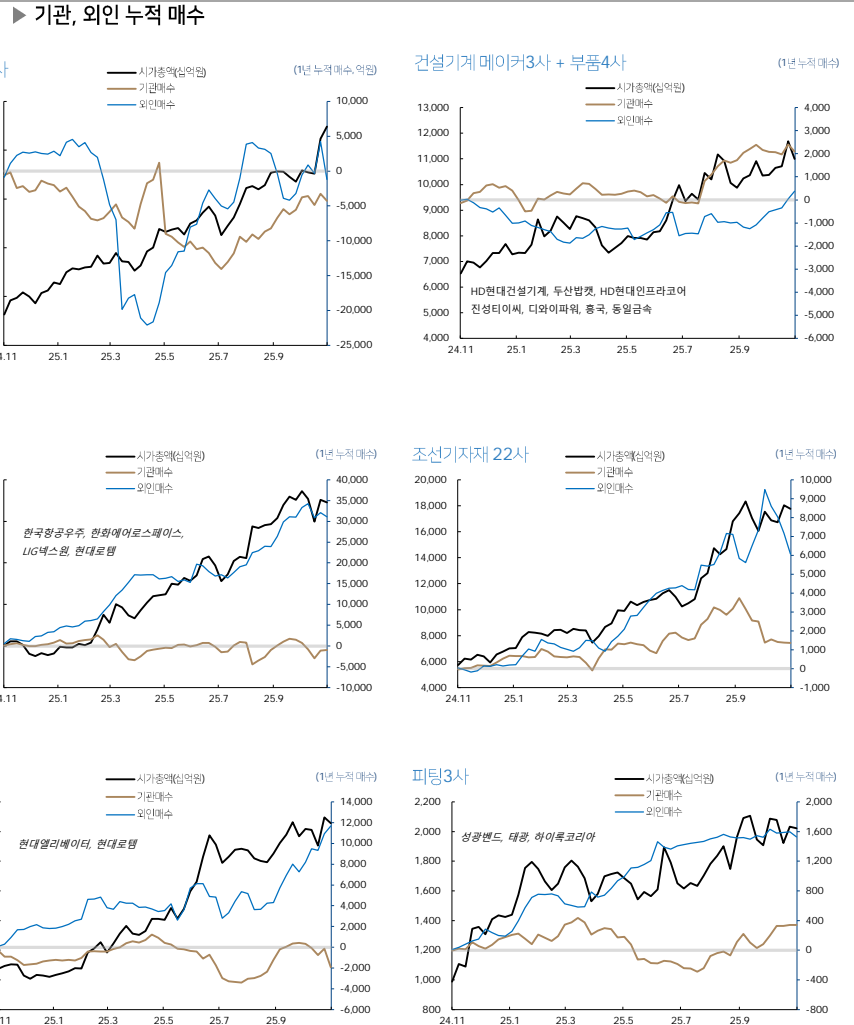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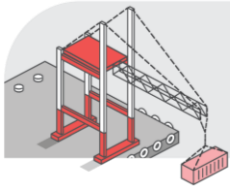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다올 기계 ChartBook

2025.11.02 [795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추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214	-8.9%	7.5%	7.5%	96%	103%	
	HD현대인프라코어	2,015	-10.2%	2.3%	2.6%	130%	152%	
	두산밥캣	4,077	-2.1%	9.9%	10.1%	66%	78%	
	대형							
	CATERPILLAR	270,434	10.4%	20.1%	33.1%	52%	153%	
	KOMATSU	31,879	-8.4%	0.7%	-4.3%	29%	74%	
HITACHI CM	7,023	1.6%	9.3%	8.4%	50%	71%		
VOLVO	56,045	0.6%	-3.0%	-8.9%	-1%	57%		
중국	SANY	28,251	-3.4%	-4.7%	11.1%	18%	44%	
	XCMG	17,563	-6.4%	-7.5%	24.7%	30%	120%	
소형	DEERE	124,792	-2.4%	2.2%	10.8%	15%	17%	
	CNH	13,121	-2.7%	-0.7%	21.2%	-7%	-21%	
	TAKEUCHI	2,025	1.8%	25.9%	21.3%	34%	113%	
	TEREX	3,019	18.4%	11.0%	12.0%	-10%	9%	
	SUMITOMO HI	3,295	-6.9%	21.0%	27.3%	26%	45%	
	SANDVIK	38,089	0.3%	10.3%	18.0%	37%	63%	
	UNITED RENTALS	55,433	-4.6%	-9.5%	-2.1%	10%	169%	
	건설기계	디와이퍼워	99	-0.7%	5.1%	-6.4%	5%	12%
	부품	진성티이시	201	-3.3%	4.5%	8.0%	54%	17%
		우림기계	62	0.8%	31.6%	27.5%	27%	-10%
중국		42	-0.4%	-2.0%	-6.9%	0%	-13%	
동일금속		50	-1.1%	-3.2%	-6.4%	-11%	-69%	
KUBOTA		14,941	-5.0%	9.9%	16.8%	3%	-3%	
가야바	1,284	-2.9%	0.6%	20.8%	67%	139%		
Hengli	18,093	3.4%	0.3%	27.0%	78%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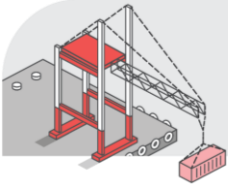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7,071	2.0%	-2.8%	11.7%	80%	10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5,675	-3.2%	-10.0%	4.7%	165%	1195%	
	LIG넥스원	7,988	6.5%	2.4%	-13.2%	114%	397%	
	한화시스템	7,916	8.7%	-1.3%	4.9%	243%	416%	
	아스트	151	-3.9%	0.4%	-19.5%	2%	-89%	
	퍼스텍	158	-6.4%	1.0%	0.9%	46%	45%	
	하이즈항공	29	-2.4%	-2.0%	-20.3%	24%	-28%	
	오르비텍	83	1.5%	30.7%	10.3%	95%	-8%	
	방산/항공	Boeing	152,794	-9.2%	-6.6%	-13.7%	30%	26%
		Airbus	194,840	2.4%	7.2%	18.4%	52%	90%
방산	LOCKHEED MARTIN	113,820	1.3%	-1.4%	16.8%	-10%	2%	
	Raytheon Technologies	239,328	-0.1%	6.8%	13.8%	50%	87%	
	Northrop grumman	83,270	-3.7%	-3.6%	2.4%	15%	12%	
	GENERAL DYNAMICS	93,165	-1.7%	1.2%	9.8%	18%	38%	
항공	BOMBARDIER	14,010	0.7%	-1.1%	18.1%	88%	362%	
	EMBRAER	11,936	0.5%	6.5%	34.8%	94%	300%	
항공 부품	ROLLS ROYCE	128,911	4.1%	-0.8%	19.4%	113%	1271%	
	SAFRAN	150,315	1.1%	3.2%	11.0%	46%	171%	
	SPIRIT AERO	4,312	-7.1%	-4.7%	-10.5%	12%	57%	
	TRIUMPH	#N/A N/A	0.0%	0.0%	0.0%	89%	181%	
	MHI	101,866	5.1%	24.7%	30.2%	120%	767%	
	KHI	13,512	7.0%	32.2%	14.2%	117%	375%	
	FHI	15,617	0.5%	9.9%	15.5%	33%	31%	
IHI	22,590	3.5%	25.3%	39.7%	187%	556%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291	-2.3%	5.3%	-9.4%	-26%	-30%	
	SK오션플랜트	927	-7.6%	-15.5%	7.2%	62%	3%	
	세진중공업	877	-2.6%	3.5%	84.4%	229%	260%	
	유니스	189	0.8%	16.9%	0.0%	91%	-26%	
	동국S&C	84	-13.9%	-9.6%	-24.0%	-16%	-60%	
	태웅	433	-0.2%	-2.8%	-21.5%	127%	210%	
	VESTAS	20,565	5.5%	3.1%	5.1%	-1%	-15%	
	GOLDWIND	8,925	-0.8%	4.9%	59.1%	44%	39%	
	NORDEX	6,954	13.0%	12.5%	25.5%	94%	168%	

중전기	LS Electric	9,339	20.8%	54.0%	54.8%	212%	724%
	효성중공업	15,003	20.2%	67.3%	104.4%	451%	3505%
	HD현대일렉트릭	22,292	13.0%	48.3%	80.8%	174%	2202%
	ABB	136,808	0.8%	3.8%	12.2%	23%	111%
	Schneider	163,675	-3.0%	0.5%	4.2%	3%	88%
	WEG	32,828	1.8%	17.6%	16.4%	-23%	3%
	Crompton Greeves	2,050	-3.6%	-3.5%	-14.1%	-28%	-22%
피팅	TBEA	13,895	3.1%	10.0%	39.6%	40%	16%
	성광벤드	589	-0.8%	-7.2%	3.4%	149%	111%
태광	태광	524	1.6%	1.4%	42.4%	132%	65%
	하이룩코리아	306	-2.5%	3.3%	28.5%	6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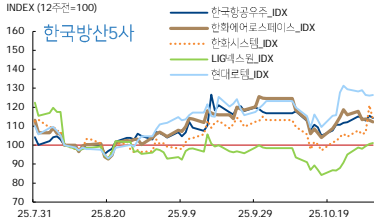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17,714	-2.3%	4.3%	17.9%	277%	828%	
	ALSTOM	11,527	-1.4%	-3.4%	-1.6%	8%	6%	
	Bombardier	14,010	0.7%	-1.1%	18.1%	88%	362%	
	CNR	59,352	0.8%	2.1%	2.4%	-11%	-16%	
	CAF	2,165	0.4%	4.8%	0.6%	49%	97%	
	CSR	29,511	-9.9%	-1.8%	3.9%	15%	122%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089	-10.5%	-2.9%	-6.7%	66%	199%
		KONE	35,336	-0.9%	0.6%	7.0%	15%	31%
		THYSSENKRUPP	6,511	-0.4%	-3.6%	8.3%	277%	150%
		MITSUBISHI ELEC.	59,200	7.8%	16.2%	30.5%	58%	230%
HITACHI	158,110	16.4%	37.2%	15.3%	45%	280%		
SHANGHAI ELEC.	18,195	-3.4%	11.0%	34.8%	96%	173%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48	-2.5%	-4.3%	-3.1%	15%	0%	
	와이지원	119	-1.6%	-0.4%	-11.5%	0%	-23%	
기타	S&T중공업	1,268	-13.6%	-25.2%	4.2%	122%	510%	
	Amada	3,925	-2.2%	2.6%	8.7%	22%	77%	
	Moriseiki	2,217	-24.3%	-17.3%	-32.2%	-18%	40%	
	Jtekt	3,204	1.2%	7.4%	20.9%	47%	50%	
	Okuma	1,509	-4.4%	2.8%	-13.0%	10%	38%	
	Makino	1,809	-0.7%	-2.3%	-2.0%	78%	153%	
	Gildemeister	4,233	-0.2%	0.4%	0.9%	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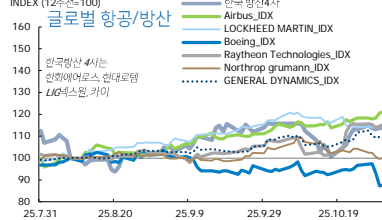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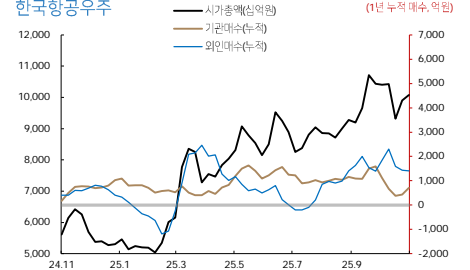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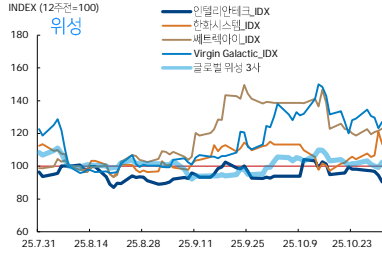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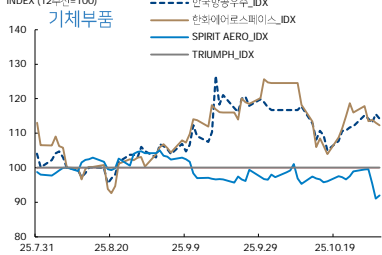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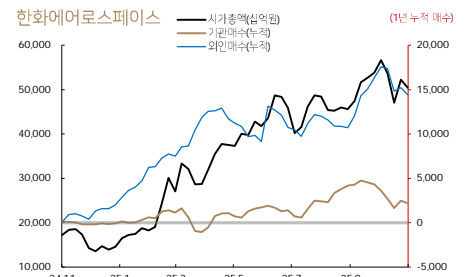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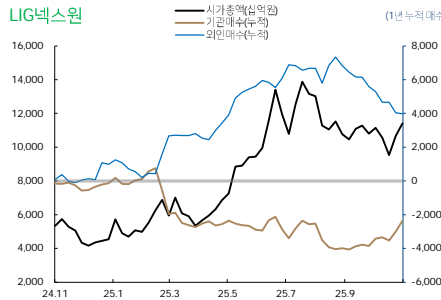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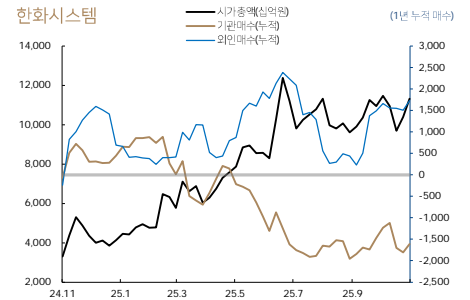
한화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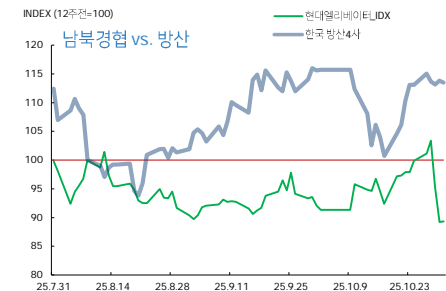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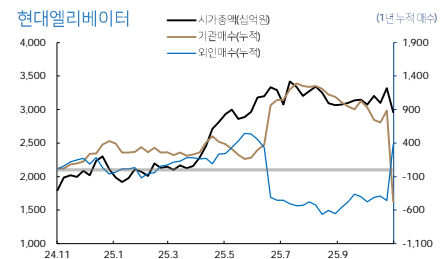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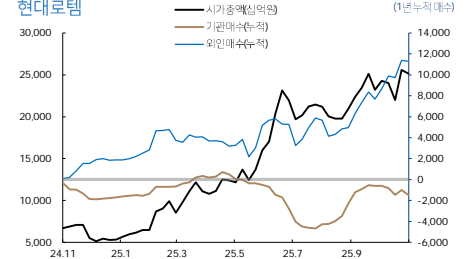
▶ 방산 vs. 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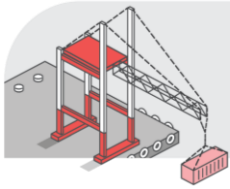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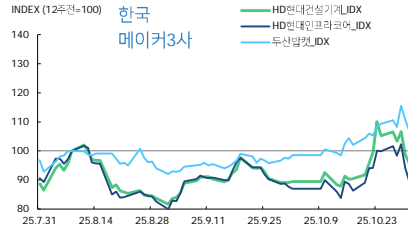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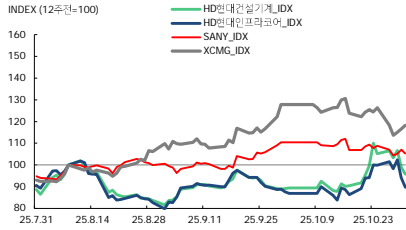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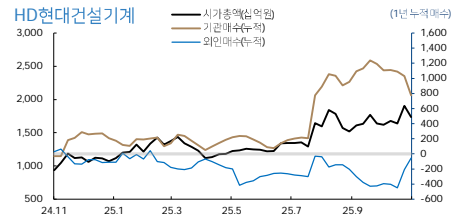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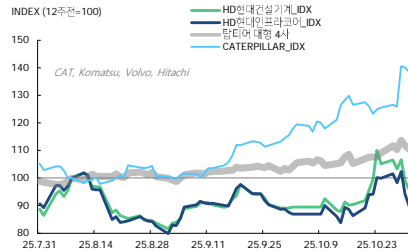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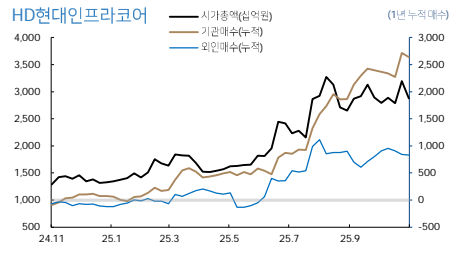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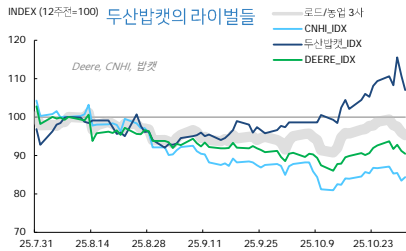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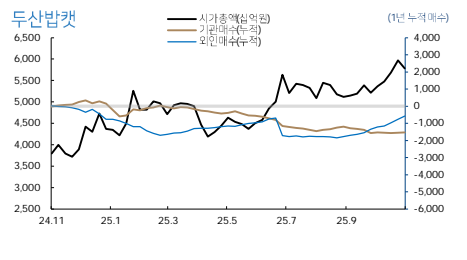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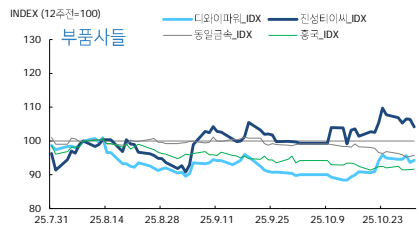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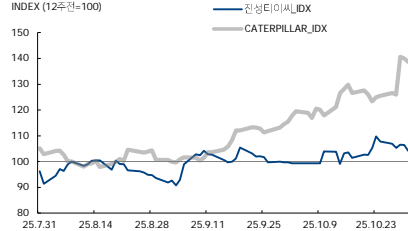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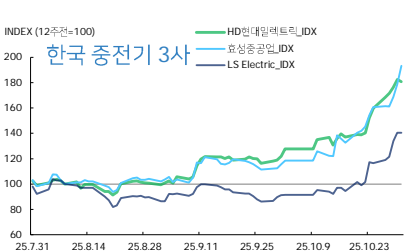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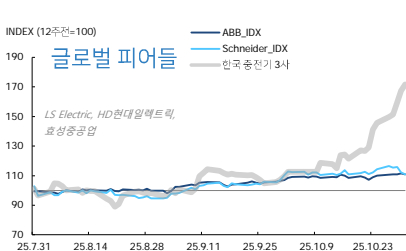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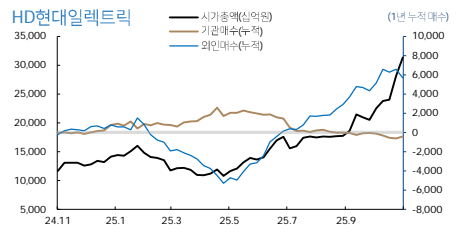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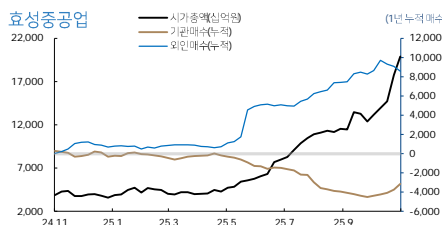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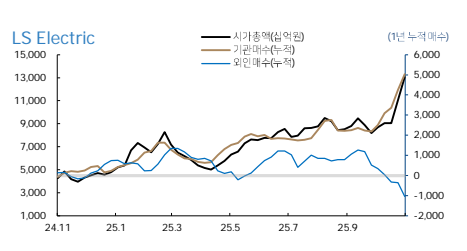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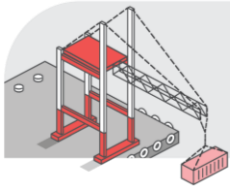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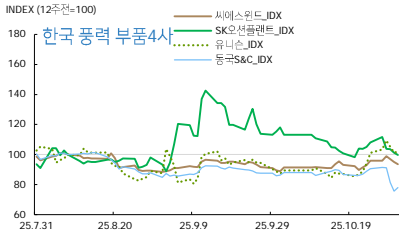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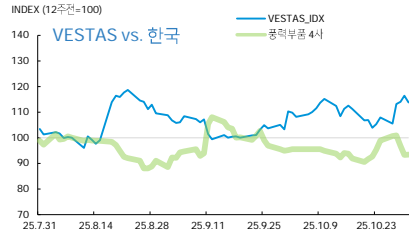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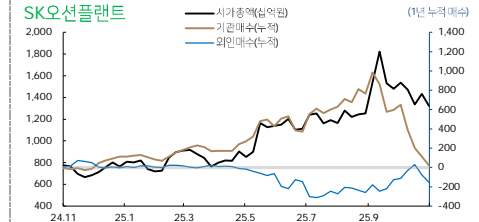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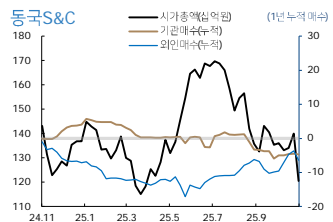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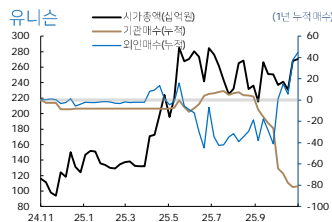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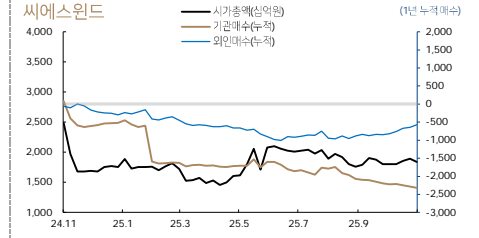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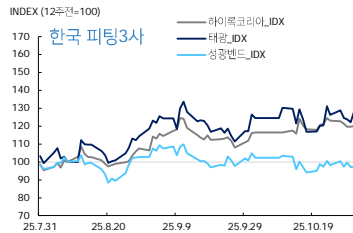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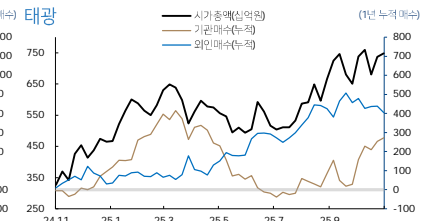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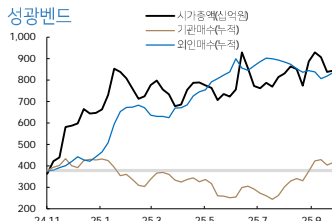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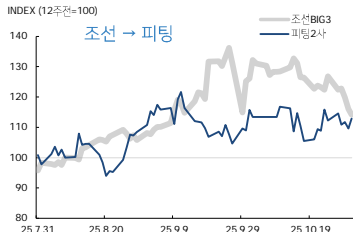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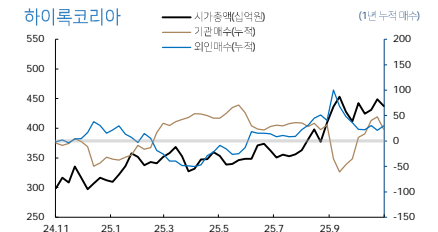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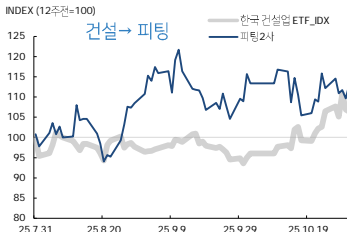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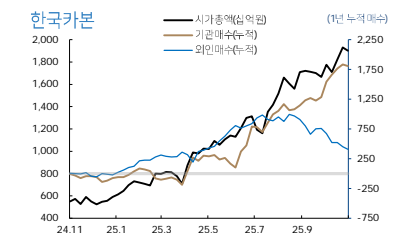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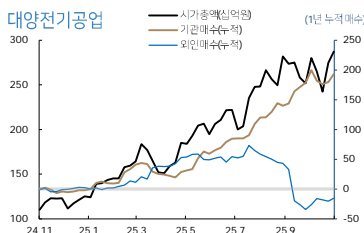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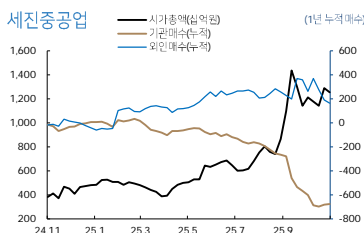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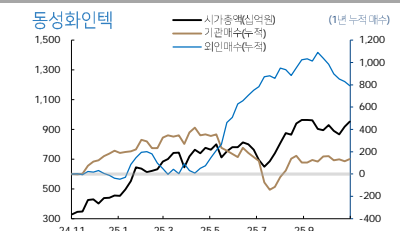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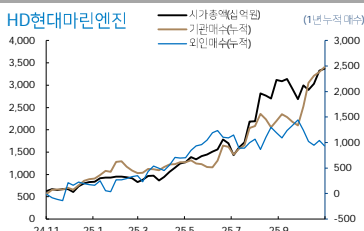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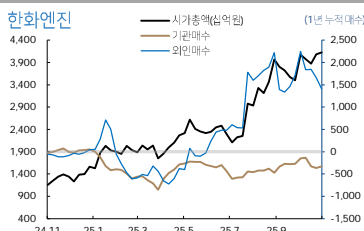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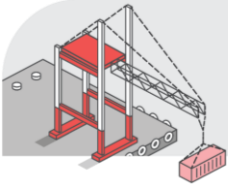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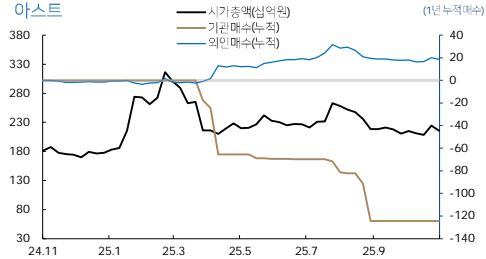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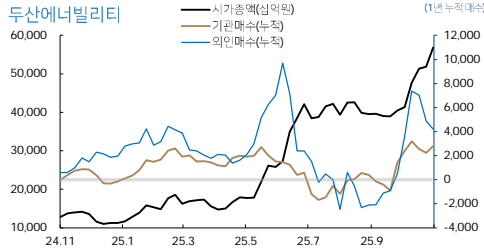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 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89.4% **HOLD : 10.6%**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를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